

‘민생 안정 최우선’ 화순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총력’

생계비·장애인 일자리·자활 사업 등 맞춤형 복지 정책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생활 안정·돌봄 안전망’ 구축

화순군이 취약계층 보호와 민생 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 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8일 화순군에 따르면 군은 생계지원, 일자리, 위기가구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달에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1천729세대에 9억 2천555만원, 차상위계층 540세대에 생활안정지원금 1천80만원, 난방비 1천62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소득(연 1억3천만원 이하)과 재산(12억원 이하) 요건이 개선되면서 생

계급여 대상자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급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183만원에서 285만원으로 인상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환경정화)을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 중이다.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총 14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군비 8억여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사를 통해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화순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활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모집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며, 참여자는 월 평균 70만원에서 150만원의 자활급여를 받고, 사업 성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지급된다.

현재 9개의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 중이며, 65명이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사업단으로는 ▲맛갈손 도시락 ▲스마트세탁 ▲에코화순 ▲바로케어 등이 있다.

또한 동절기 위기가구 집중 지원을 위해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발굴,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4인 가구 기준 188만원) ▲의료비(최대 300만원) ▲주거비(25만원) 외에도 연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위기가구의 가정 해체를 방지하고 조기 회복을 돕는다.

이달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선다. 모금된 기부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비·의료비, 재해복구 지원, 장애인-어르신 복지 서비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허선심 사회복지과장은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인상이 예정된 만큼 확대된 복지사업이 취약계층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이병철 기자

국내 첫 ‘해양기상과학관’ 여수에 문연다

21일 개관...5개 전시관·특수영상관 조성

여수시가 국내 최초로 해양을 주제로 한 기상과학관을 조성했다.

1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시 오동도로 61-9(여수세계박람회장 내) 5천202㎡의 부지에 자리한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사진)’이 오는 21일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천376㎡ 규모로 여수시가 부지 매입비 72억원을 제공했으며, 광주지방기상청이 운영한다.

기상과학관은 관람객들에게 바다날

씨와 관련된 기상과학원리부터 해양과 기후변화의 연관성까지 폭넓은 이해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기상과학관이 2025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로 자리 잡고, 기후변화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은 5개 전시관과 1개 특수영상관 등 다양한 전시와 교육, 과학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

간으로 꾸며진다.

5개 전시관은 ‘날씨놀이체험관’과 ‘해양기상현상관’, ‘해양기상관측관’, ‘미디어아트관’, ‘해양기후변화관’ 등이다. ‘날씨놀이체험관’에서는 바람과 강수, 천둥, 번개 등 기상 현상의 기본 원리를 신체 놀이로 배우고 체험이 가능하며, ‘해양기상현상관’에서는 태풍의 강도에 따른 바람 체험과 높이에 따른 파도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또한 해양기상관측관에서는 기상요소를 관측하는 원리와 다양한 해양기상 관측 장비를 만날 수 있으며, 미디어아트관은 동작에 따라 변화하는 날씨를 만들어 보는 인터랙티브 체험관이다.

해양기후변화관은 바다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해 위기 극복을 다짐하는 공간이다. 특히 특수영상관은 직경 12m의 입체 구 공간으로 우주와 지구, 바닷속 기상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해양기상과학관은 해양기상·기후와 교육문화공간으로 미래 성장세대에게 좋은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 기자



전라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2024. 12. 17. 전남농업기술원



구례군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7일 전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 ‘최우수’

휴살리기 사업·미래농업 인재 육성 등 농업 경쟁력 강화 기여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18일 “2024년 전남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500만원과 도비 1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남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는 신기술 보급 실적과 전남 역점정책 추진 성과 등 9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기관을 선정하는 평가

다.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탄소중립을 위한 ‘휴살리기 사업’ 추진 ▲청년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을 통한 미래농업 인재 육성 ▲밀산업 벨리화 시범 단지 조성 ▲중소형 수박 수직재배 기술 도입 ▲소비 트렌드에 맞춘 ‘태추 단감 생산단지’ 육성 등 현장 중심의 기

술보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구례만의 특화된 농업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구례=임종길 기자

김한중 장성군수 “민생안정 행정력 집중”

확대간부회의서 긴급 지역맞춤형 대책 추진 지시

장성군은 18일 “전날 김한중 장성군수가 확대간부회의(사진)에서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혼란스러운 정국에 민생안정에 행정력 집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남도가 1천185억원을 긴

급 투입해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장성군도 내년 3월까지 ‘긴급 지역맞춤형 민생안정화대책’을 수립·추진할 것을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장성군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말 송년모임 등의 행사를 정상 추진하고, 내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장성지역 사용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성=김문태 기자

고흥 2025년산 ‘생김’ 본격 생산 돌입

위판장 개장...120kg 1포대 당 최고 38만원 거래

고흥군이 2025년산 생김 위판장 개장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다.

18일 고흥군에 따르면 전남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안전 조업과 생김 품질 향상을 위한 2025년산 생김 위판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고흥 김은 322어가(1만380ha)에 총 10만3천800척이 시설됐으며, 생김 가격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120kg 1포대 당 최고 38만1천900원, 최저 2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올해 생김은 김 채매 초기에 전년도보다 높은 수온으로 분망과 채취가 늦어져 위판량은 다소 감소했으나, 위판 단가가 크게 올라 김 생산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흥군은 깨끗하고 품질 좋은 김 생산을 위해 인증 부표를 공급하고 있으며, 김 양식 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김 종자 공급, 김 황설처리제 공급, 김 채취기 지원 등 6개 사업에 108억원을 투입해 김 양식어가 소득 증대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김 생산이 끝나는 날까지 안전하게 조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이상기후로 감소한 생산량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김 육상양식을 위한 사계절 육상 김 생산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흥군은 김 생산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김 생산 시기 동안 병해 예방, 김 양식 시설 관리 및 불법 시설물 단속·철거 등 행정 지원과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고흥=최봉환 기자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17일 도화면 발포위판장에서 2025년산 생김 위판장 개장식을 기념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담양군 공직자 8명, 정든 30여년 공직생활 마감



공로연수·명예·정년퇴직 등 명예퇴직을 신청,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미숙 고서보건지소장이 현직을 떠나 6개월간의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달 말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는 강경원 행정국장(4급 지방행정 서기관)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실·관광과·투자유치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자치혁신국장·담양읍장·행정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한다.

공로연수·명예·정년퇴직 등

오는 31일 기준 담양군 공직자 8명이 ‘공로연수·명예퇴직·정년퇴직’ 등으로 30여년 몸담았던 공직을 떠난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4급 서기관인 강경원 행정국장, 5급 사무관인 김종곤 가사문학면장이 ‘명예퇴직’으로 12월 말 공직을 떠난다.

또 심재경 미래성장국장(4급), 5급 사무관인 김태중 금성면장과 김민지 월산면장이 현직을 마무리하고 1년 기간의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6급에서는 주미경 담양읍사무소 부읍장과 강숙인 대덕보건지소장이 ‘명

예퇴직’을 신청,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정미숙 고서보건지소장이 현직을 떠나 6개월간의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이달 말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나는 강경원 행정국장(4급 지방행정 서기관)은 1988년 공직에 입문해 기획실·관광과·투자유치 등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후 자치혁신국장·담양읍장·행정국장을 끝으로 공직생활 33년을 마무리한다.

심재경 미래성장국장(4급 지방기술 서기관)은 1992년 입문해 재난관리·건설방재·상수도사업소 등을 거쳐 건설과장·도시과장 등으로 성실하게 근무, 미래성장국장을 끝으로 32년여간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 김종곤 가사문학면장은 1990년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34년,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태중 금성면장과 김민지 월산면장은 32년여 공직에 몸을 담았다. 주미경 담양읍 부읍장은 1985년 담양군보건소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40년간 군민들의 보건복지에 성실히 근무했다.

강숙인 대덕보건지소장과 정미숙 고서보건지소장은 1992년 담양군보건소에서 첫 공직을 시작한 이래 32년여 공복으로 일해오다 연말에 정년퇴직 및 공로연수로 공직을 마무리한다. /담양=정승균 기자

순천시, 액화수소충전소 운영 시작

시간당 120kg 수소 충전...하루 120대 용량

순천시는 18일 “가곡 액화수소충전소(사진)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충전소는 수소버스·승용차 대상으로 충전을 진행하고 있다.

순천 가곡 액화수소충전소는 SK플러그하이비스가 환경부 “2022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돼 건립됐다.

위치는 가곡동 189 일원으로 2개의 충전기가 설치됐으며, 시간당 12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다.

이는 버스 기준으로 하루에 12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이다.

액화수소는 기체수소에 비해 부피가 작아 1회에 많은 양을 운송할 수 있으며, 충전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일류순천에 걸맞게 앞으로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기 기자